

미래로 이기라

김병국 | 천안대학교 신약학 교수

출처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

히브리서 12장 1~2절

1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오늘 하루의 삶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그들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온 인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날의 새벽기도는 그냥 그날 '하루'를 견딜 힘을 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하는 현실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현실은 아프고, 아프에는 아픔 자체의 무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지 않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긴다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5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십자가라는 현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의 고통이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그 여섯 시간, 혹은 고난주간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이전 생애 전체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모르고 있다가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삶의 무게를 견디셨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십자가 생각에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미쳐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쁨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사명감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종류의 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게 뭘니까? 미래에 주어질 상급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주님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힘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직

미래에 대한 소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그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에 짓눌려 우리의 삶이 낭비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은 반드시 어떻게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김병국

연세대학교를 나와 총신대신대원(M.Div.)과 화란 캠펠신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천안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출처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